

손창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유형화

한 상 규

1

손창섭의 소설에는 매우 이색적인 인간형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속물적인 인간이거나 극단적인 비관주의임을 뜻한다. 여기서 속물적인 인간은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외부의 헛된 권위나 가치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물들로 일말의 구제 가능성도 없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물지각한 인물이거나 극심한 자기기만에 빠져있는 인간들이다. 이에 비해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들은 언제나 현실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그 현실을 조소하고 경멸한다. 이들은 현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실천하고 행동하기를 극히 주저하는 인물들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들이 해야만 할 당위적 과제도 또 그것을 해야겠다는 행동의 의욕과 의지가 없다. 심지어는 무언가를 하고싶다는 최소한의 주관적 선호나 취향마저 그들로부터 배제된다. 극도로 정체되고 무기력한 처지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의 성격적 특징은 한마디로 무관심과 냉소이다.

손창섭의 작중인물들을 이렇듯 속물적 인간과 극단적인 비관주의자의

들로 나누어 볼 때, 이제 문제는 이들을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령, 우리는 전자를 몰주체적 인간형으로 또 후자를 수동화된 개인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이분류의 중심에는 당연히 자율적 주체라는 모델이 자리잡고 있거니와, 이 모델의 설정을 통해 그로부터 각각 저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있는 작가의 비정상적 인물들의 속성을 비로소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¹⁾. 특히 이 모델의 설정을 통해 실존주의의 주체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즉 독특하고 예외적인 개인 혹은 기존사회의 규범에 쉽게 포섭될 수 없는 소외된 개인만 엿보이면 실존적 주체를 적용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한 주체의 성격을 좀 더 구분지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²⁾ 분명한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극도의 반감과 환멸을 드러내 보

-
- 1) 일상인들의 생활 양식이 주인과 노예,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단하는 데 있어 E. 프롬과 사르트르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 지배와 복종의 굴레가 가하는 심적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아예 외부세계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극히 냉소적이고도 독단적인 개인의 존재를 또 한편에 그들은 설정해 둔다. 이러한 구분법의 중심에는 진정한 자발성을 갖춘 개인의 존재가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발성이란 개인이 자기자신의 자유로운 활동의 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물론 프롬의 경우, 이 자발성이 훨씬 더 낙관적이고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는 반면 사르트르에게서는 보다 불투명하고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거론된다. 그렇지만 그 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을뿐만 아니라, 그 현실화의 가능성 또한 크게 의심치 않는다. E. 프롬(이 규호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삼성출판사, 1983. 제5장과 7장 참조. 사르트르(양 원달 역), 존재와 무(하), 을유문화사, 1990. 제3부 제3장 참조.
 - 2) 천 이두는 가령, 손 창섭 소설에서 보이는 불안의식을 서구적 문맥의 실존주의 사상에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자기자신의 절실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어 자기 구원에의 절기찬 탐험을 통한 불안의 초극이 그것에는 없음을 지적하면서 개체와 집단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 양식의 파악에 의한 인간존재의 형이상학적 인식의 영역에 그것이 미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천 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4, 220면) 이러한 사실을 본고는 수동화된 개인과 자율적 개인이라는

이며 일방적인 대립을 일삼는 수동적 개인을 가리켜 실존적 주체를 거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질서의 권위나 신용을 극히 불신하면서, 계몽주의적 세계관이나 체계화된 관념론을 결단코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서로 통한다. 말하자면, 전통적 가치의 근본적인 허구성을 두루 살펴 그 불합리하고도 자기모순적인 면모를 극력 들추어 내려는 부정적인 시각은 그들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예컨대, 사르트르같은 실존주의자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나 정신적 덕목들을 한갓 외부로부터 강제된 근거없는 존재로 본다. 그리고 인생의 조건을 본래 텅 비어있는 '무'의 상태로 규정한다. 이 점은 손창섭의 작중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현실 그 자체의 객관적 진실이나 가치를 신용하지 않는다. 즉, 이들은 현실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그 자체의 자율적 의미란 조금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공통점은 그러나 다른 전후 작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그칠 뿐, 확인된 현실의 부조리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에 이르러서는 서로가 확연히 갈라선다. 몇가지 상이점을 나열해 본다면 가령, 수동화된 개인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등을 돌린 채 그 현실을 단지 냉소하고 방관할 뿐이다. 이들에게 현실의 무의미성을 확인하는 행위는 곧바로 현실을 저버리는 행위와 똑같다. 경직된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나있는 이들은 극도의 무관심 속에서 모든 현실적 관심과 의욕을 자기자신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냉소적 태도가 발전하여 공격화되면 파괴적인 것이 되기 일쑤이다. 이 파괴는 그리고 때로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³⁾

한편, 이에 반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자율적 주체란 그 정당한 의미를 앞서의 냉소보다는 참여에, 파괴보다는 새로운 재건에, 그리고 방관적인 물러섬보다는 모험적인 주체의 투기에 둔다.⁴⁾ 말하자면, 무의미한 현실을

항목에 수렴시켜 논의를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3) E. 프롬, 위의 책, 163면.

4) 사르트르는 아무런 외부적 강요없는 자유의사로 무의미한 사실을 일정한 가치로 전화하는 작업을 진정한 미적 활동으로 본다. 그는 곧, 아무리 절

단순히 방치하고 마는 무책임한 자유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현실을 가꾸고 조직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자유로 나아감을 그것은 그 기본강령으로 삼는다. 수동화된 개인이 펴 내면화된 소극성을 보인다면, 이것은 반대로 그 나름대로의 자기중심 위에서 행동의 적극성을 도모한다. 전자가 아무런 선택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착잡한 표정으로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 후자는 일정한 형태의 선별작업을 통해 상황과의 부단한 부딪침과 그 만남을 시도한다. 그래서 전자에게서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결단들이 상당 부분 흐려져 있을 때라도 후자는 비록 선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결단의지나 판단력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투지나 열정을 보여준다.⁵⁾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일어난 개인에 대한 관심과 자각을 무턱대고 실존주의의 범주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다 구분된 관점에서 작품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

손창섭이 즐겨 그리는 인물유형 중에 극히 세속적인 인간이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권위주의’형 인간으로서 자기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가 내세우는 권위의 정당성과 그 합당함을 미처 따져보기도 전에 맹목적으로 그것의 획득에 광분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에게 이 세속적 가치는 삶

망적이고 모진 상황에서도 보다 너그럽고 초월적인 관점에서 늘 끊임없이 되어가는 삶을 구상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작품세계가 곧 인간적 기도(企圖)를 통한 사실들의 미적 변형이다. 사르트르(김 봉구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문고, 1972, 86면.

- 5) 사르트르, 앞의 책, 88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실세계란 오직 행동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며, 오직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계를 초월함으로써만 자기가 그 세계속에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설가가 세계를 초월하기 위한 행동속에서 세계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소설가의 세계란 한갓 종이장처럼 부피를 잃고 말 것이다.

의 유일한 근거로서 이의 소멸은 곧 삶의 상실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행동은 이렇듯 삶의 가치를 자기 바깥에서 구하려 드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형 인간은 몰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 몰주체적인 인간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러나 단순히 그가 권위지향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그 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획득에 광분한 나머지 자신의 실제 처지는 전혀 되돌아 보려 하지 않는데 그의 더 큰 문제점이 놓여있다. 이 계열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유실몽>의 상근, <미해결의 장>의 '대장' 및 '문선생'과 '장선생', 그리고 <혈서>의 준석 등이다. 이 중에서 가령, 상근과 같은 작중인물은 겨우 그의 처에 얽혀 사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창한 직분이 새겨있는 '명함'을 내놓기를 좋아하는 인물이다. 또 <혈서>의 준석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친구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신의 입신영달을 꿈꾸며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손창섭의 작품세계는 자신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허명의 세계를 좇아 살아가는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러한 몰자각적인 삶의 태도는 헛된 명리에 집착하는 속물근성에서 형성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몰주체적인 인간형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작가 손창섭은 매우 특이한 인간의 면모에 주목하는데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관계는 손창섭의 속물적 인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으로 그의 작품 어디를 펼쳐도 대면하게 되는 요소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근의 주먹은 아내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누이는 날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두 손으로 뒷통수를 가리웠다. 놀랍게 민감한 동작이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동그랗게 몸을 사리는 굼벵이처럼 이미 습성화되어 있었다. 여유를 주지 않고 상근의 주먹이 피스통처럼 움직였다. 누이의 어깨와 등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누이는 한층 더 몸을 오그리는 것이었다. 하 건디기가 벽차면 누이도 그에 사정을 했다.(...) "오늘 밤부터는 따루 자요! 지분거렸단 봐라" 눈을 흘기며하는 소리다. 그 래도 얼굴에는 분노나 비애의 기색이라곤 없었다. 애교를 띤 미소가 알 밍도룩 물살처럼 번지었다. (밑줄은 필자)⁷⁾

6) E. 프롬, 위의 책, 159면. 개인의 무력함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이들은 자기외부에 있는 어떤 힘- 이차적인 힘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7) 손 창섭, 유실몽, 전통문화대계 20, 어문각, 1988.

이 부분은 '돈과 성'밖에 모르는 '누이'와 또 사실은 무능력하면서도 언제나 겉으로는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그의 남편 '상근' 사이에 이미 생활화되다시피 한 부부싸움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 장면은 속악한 현실의 부정적 단면을 극히 경쾌하게 희화화시킨 대목으로 하등의 의미도 없는 세속적 인물들의 삶을 가장 날카롭게 그려낸 부분중의 하나이다. 특히 새디즘과 매저키즘이라는 정신분석학적 틀에 인물들을 위치시켜 그들의 허구적인 면모를 살펴보려 한 것으로는 가장 적절한 기술적 묘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작중인물 상근은 새디스트이며 그의 처인 누이는 매저키스트이다. 이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상호 기생하는 관계이다. 즉 상근은 누이의 강한 생활력을 이용하여 그녀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인물이고, 또 누이는 그로부터 자신의 누를 길 없는 성욕을 만족시킨다. 이들의 연대는 상호주체적인 입장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리공생의 관계로 맺어진 경우다.⁸⁾ 다시 말해 주체적인 자기정립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삶을 보완하고자 하는 올바르게 본질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유대가 아니다. 작품 <미해결의 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이 '대장'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 관계, 혹은 지배와 복종 관계에 불과하다.⁹⁾ 정신분석학적 틀에 맞추어 볼 때, 여기서 지배는 새디즘에 또 매저키즘은 복종에 연결된다.

주지하다시피 새디즘적 충동은 타인을 단순히 지배하고자 할 뿐 아니라 그를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면, 하등의 실속도 없으면서 상대를 호령하고 부러먹으려는 <유실몽>의 상근과 <미해결의 장>의 '대장' 그리고 <혈서>>의 준석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와 비슷하게 매저키즘적인 충동은 자기자신의 행동과 능력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자기를 비하하거나 상대의 힘에 쉽게 예속되기 일쑤다.¹⁰⁾ 유념할

8) E. 프롬, 위의 책, 162면.

9) 권위주의형 사고에는 평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프롬은 본다. 그래서 이 유형의 인간들은 우월이나 열등, 차별만을 경험하며 진정한 일차적 유대관계는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E. 프롬, 앞의 책, 158면. 한편 사르트르도 일상의 생존이 대부분 주인과 노예간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르트르, 존재와 무(하), 513면.

10) 새디즘과 매저키즘에 대한 정의는 프롬, 위의 책, 148면.

것은 새디즘과 매저키즘적인 충동은 결코 서로 동떨어져 존재할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서로가 그 상대가 없을 경우에는 결코 존립할 수 없는 공생적인 관계에 선다. 유실몽에서 인용한 대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 상근은 돈을 벌기위해 아내를 곧잘 구타하기 까지 하는 위세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아내가 없으면 ‘민어지지 않을 만큼 풀이 죽는다.’ 그리고 작중인물 ‘누이’ 경우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결코 심각하게 억울해하거나 비판해하지 않는다. 비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종내는 그같은 행위에 미소까지 짓는다. 이로보아 상근으로 대표되는 새디즘적 인물은 약화된 자신의 처지를 오직 타인의 노동력에 의지해 그것을 재강화하려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리고 누이로 대변되는 매저키즘적인 인물은 순전히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로 타인에게서 삶의 만족과 안정을 구하려드는 종속적인 인간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틀이 손창섭의 다른 작품에서도 매번 발견되는 상투적인 모형임은 다음 구절이 입증한다.

그 구절을 인용하기 전에 여기서 한가지 부언할 것은 손창섭의 소설에는 이 새디즘과 매저키즘적인 관계가 훨씬 약화된 관계로 그려져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외견상으로 병약하고 심약한 모습의 무능력자들과 그들의 부양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은근히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포우즈를 취한다. 작품 <유실몽>과 <미해결의 장>만 하더라도 ‘춘자’의 아버지와 ‘광순’의 오빠인 ‘문선생’은 변형된 새디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딸이나 누이에 얽혀 살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에 기생하며 살아간다. 어느 의미에서 보이지않게 착취가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 관계는 새디즘과 매저키즘의 분석적 틀로서 보다 적절히 관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비오는 날>의 ‘동욱’과 ‘동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모친은 동맹이치듯 짐을 내려 놓더니 내 옆에 와서 말없이 누워 버리었다. 모친은 견딜 수 없이 피로한 것이다. 육체도, 정신도 과로와 생활난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다. 그러한 모친의 몸뚱이는 흡사 증병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야윌 대로 야윌었다. 해골처럼 뼈만 남아있는 것이다. 워낙이 살기없는 체질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두드러지게 가늘어진 것이다. 그 가느단 목화 팔과 어깨에는 서리맞은 넝쿨에 호박이 달려있 듯 여섯 식구가 주렁주렁 매 달려 있는 것이다. 모친과는 반대로, 아무렇게 다루어도 도무지 축이 갈 줄

모르는 대장의 비대한 몸뚱이에 나는 늘 위압을 느끼는 것이다.¹¹⁾

작품 「미해결의 장」에서 부친과 가족간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그러나 미묘하기 그지없어 부친은 겉으로는 ‘대장’의 신분으로 가족 위에 군림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생존 해결을 다른 가족들의 벌이에 의존한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무용한 인간이 내보이는 태도다. 대부분 이들 새디스트들은 자신의 기생적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에게 큰소리 치거나 자신의 삶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킬 거짓된 명분을 창출하는 데 골몰한다. 가령 위의 작품에서의 대장은 술만 축내며 살아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성회라는 이념 단체를 결성하여 인류의 구원과 진리의 성취를 얘기하곤 한다. 여기서 물주체적 인간형으로서의 새디즘과 매저키즘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권위 지향적 삶의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를테면, 자신의 생존 근거를 사실상 피착취자에게 두고 있는 새디즘적 인물은 그같은 독자적인 존립의 불가능성을 극력 은폐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무능력을 덮어 버릴 수 있는 허세의 명분이나 이름 따위를 구하기에 급급해 한다. 다른 작품에서 그 예를 구한다면, 그럴 듯한 명함 만들기에 열중하는 「유실물」의 ‘상근’과 자신이 상이군인임을 자처하며 애국자연하는 「혈서」의 준석이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들은 각각 상대에게 새디스트로, 또 권위주의형 인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위선적인 제스처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부를 통 들여다보지 않는 몰지각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결국 이 유형의 속물적 인간들은 속이 텅 빈 고무인형 같은 인간들로서 진정한 자아의 독립을 포기한 채, 그 대신 그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대상에 속없이 자신을 내맡기고 살아가는 물주체적인 인간들이다. 이러한 인간은 바꾸어 말해 자신의 내면적 힘은 믿지 않고 오직 외부의 힘에만 의존하는 객체화된 인간을 말한다. 이 외적인 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세속적 출세에서부터 성실이니 진리니 하는 따위의 고전적인 정신적 가치나 혹은 문화적 인습 따위가 모두 그 일례가 될 수 있다.¹²⁾

11) 손 창섭, 미해결의 장, 위의 책.

이 표지는 그러나 작가 손창섭의 작중인물들에게서는 영웅적인 승고감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기만이나 위선을 표시하는 현실의 환상으로 그려진다. 이 환상은 말하자면 현실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헛된 명분에 걸어둔 채, 자기 발밑을 모르고 날뛰는 권위주의적 인간들의 허구를 들추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 같은 권위의 허상에 대한 작가의 편견은 극심한 데가 있어 가령 다음과 같이 모든 형태의 규범적 제약이나 문화적 가치들을 모두 부정하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나아간다.¹³⁾ 이 단계는 또 하나의 인물유형인 수동화된 개인, 즉 파괴적이고 냉소적인 개인이 지배하는 고립된 세계의 단계이다.

야생인간인 그의 생리는 인습적이다. 형식적이요, 공식적인 것들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슨 <식>이란 것이 그의 원시적이요, 섹맹적인 눈에는 거추장스런 형식으로밖에 반영되지 않는다. (……) 이 개똥 같은 권위주의식이나 봉사의식은 그가 가장 싫어하고 타기하는 것의 하나이다.¹⁴⁾

3

손창섭의 어떤 작중인물들은 세속적 권위나 허명에 빠져 자아가 몰주

-
- 12) 프름이 모든 형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의하면 권위에는 금지적 권위와 합리적 권위가 있는데, 현재에 이르러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들은 바로 금지적 권위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학생과 선생간의 관계에서처럼 상호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합리적 권위는 인정되는 바, 물론 손 창섭의 작품의 경우, <유실몽>에서처럼 이 권위마저도 부인된다. 이것은 손 창섭 작품세계의 극단적인 허무주의때문이라고 보여진다. E. 프름, 위의 책, 153면.
- 13) 손 창섭의 작품세계는 거의 일차대전 직후의 다다가 보여준 것만큼이나 극단적인 부정의식에 기초했다. 그의 작품세계는 다다이즘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의 역사와 논리와 모랄 따위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며, 모든 도덕적 가치들을 쓸모없는 인습으로밖에 보지 않는 과격한 반항의식을 내보인다. 이 유사점은 물론 세계관의 비교에 의해서일 뿐이다.
- 14) 손 창섭, 신의 회작, 위의 책.

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보여 준다. 이 각성은 그러나 극히 수동화되고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심지어 무의미한 현실을 비웃는 그 자신의 입장마저도 그리 견고한 것이 못 되어 그 스스로 곧잘 무기력한 패배감에 빠져들곤 하는 피폐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인물들로, 이 태도 속에 건강한 생활철학이나 굳건한 행동의지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결코 삶을 열려진 가능성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실존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개인의 삶을 ‘되어가는 삶’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¹⁵⁾ 말하자면, 미완의 주변세계를 자기를 중심으로 새로이 통합하고 질서지우려는 그 어떤 의식적인 노력 - 주체적 모험과 투기 - 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 냉소적 개인은 현실 바깥에 굳게 버티고 서서 어떤 실천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능한 모든 현실적 행위를 지레 부정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전쟁의 충격으로 일깨워진 개인적 생존에 대한 관심이 극히 소극적이고 반사회적인 자아 정립으로 이어졌음을 말해준다.

A) 누이와 매형 사이의 그 기이한 부부싸움은 거의 이틀거리로 있었다. 그것은 정말 기이한 부부싸움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매형은 때리기만 하고 누이는 맞기만 하게 마련이었다. 매형인 상근은 아내를 구타하는 데 상당히 숙달된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치 복싱연습이라도 하듯 두 주먹을 눈 앞에 겨누었다가 연거푸 아내의 어깨와 등을 내리 족치는 것이다. (……) 언젠가는 나에게 구원을 청한 일조차 있었다. “철수야, 좀 말려주렴아. 얼른 좀 말려줘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만 실없이 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러한 내 웃음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¹⁶⁾

B) 이렇게 무의미한 논쟁은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다. 당자인 규홍이나 창애야 어떻게 생각하든, 준석이와 달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들 두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규홍이나 창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준석이와 달수가 그 운명적인 논전을 되풀이하던 말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든 간에 규홍에

15)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89면.

16) 손 창섭, 유실물, 위의 책.

게 모가지를 뎡정 잘라 혈서를 쓰는 시만이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속에서도, 규홍은 그만큼이나 여러차례 신문 잡지에 투고물 해도 발표되지 아니하는 그 시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하고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었다.¹⁷⁾

두 인용대목에서 작중인물들은 모두 현실에 등을 돌린 초연함을 보여 준다. 이 초연함은 물론, 자신을 ‘하늘웃을 잃어버린 선녀’나, 혹은 ‘시인’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초연함이 인생의 미래를 낙관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이 초연함에는 현실에서 긍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음울한 회의가 짙게 배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초연함이야말로 현실의 무의미를 한결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설적인 장치이다. 언제나 현실 바깥에 서고자 하는 이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진작에 단정지어버린 냉소주의자들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곤 자신의 내면적 벽에 둘러싸인 채, 무위도식과 권태감에 젖어들어 있는 모습뿐이다. 비록 작품 <혈서>에서 규홍이가 그 스스로 시쓰는 것의 허구성을 드러내 놓고 자기비판하지는 않지만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로 볼 때, 그 자신부터 시 쓰기의 허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시쓰기는 말하자면 생활의 권태와 공허를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체는 ‘선녀’의 이미지나 ‘시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거리를 둔 것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냉소나 무관심, 그리고 만성적인 환멸에 훨씬 가깝다고 하겠다. 유념할 점은 이들 작중 인물들이 현실에 대해 취하는 일정 간격의 거리를 어떤 반성적인 거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냉소적인 인물이 주변인물이나 현실에 대해 가지는 거리는 흔히 비판적 주체가 현실에 대해 취하는 방법상의 인식적 거리와 또 다르다는 것이다. 후자의 태도가 무의미의 정체를 밝혀내서 다시 그를 교정하고 개선하려는 반성적 의식의 발로라고 한다면 전자의 냉소는 오로지 현실에서 멀어지기 위한 이탈자의 심정과 관련된다. 요컨대 후자가 현실을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한 뒤 다시금 현실로 되돌아가려 한다면 전자는 가능한 한 현실로부터 비정한 간격을 유지하려 한다. 이 냉담함은 가령 누이 부

17) 손 창섭, *혈서*, 앞의 책.

부의 싸움으로 대변되는 추악한 현실의 실태를 가소로운 듯 한마디의 실소로 일축해 버리는 ‘나’라는 화자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다. 작중 인물들의 이같은 비정함은 모종의 현실방관적 성격을 띤 것으로 욕망과 의욕을 일체 상실한 상태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의 허탈과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냉소적 자아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래서 아주 무의미하거나 혹은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는 희극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A) 선망에 찬 시선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으레 나더러 자기 사위가 되어 달라고 졸랐다. 나는 좀 딱했다. 그저 씩 웃고 말았다. 우리가 대답하기 난처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 “돈이 있나, 자식이 있나, 몸이라고 성킬 하나” 하고 훌쩍훌쩍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거북해지는 것이다. 조금도 나는 노인에게 동정미 가지 않기 때문이다.

B) 기발한 한 스포오츠의 게임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참말 현대식 가정 스포오츠인지도 모른다. 스포오츠가 아니라면 내가 언제나 태연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이런 스포오츠를 구경하기 위해 누이네 집에 와 있는 것은 아니었다.¹⁸⁾

인용대목에서 ‘나’는 철저히 구경하는 입장에서 사태를 냉담하게 바라본다. 이 냉담한 태도로 말미암아 작중인물의 눈에 비친 세계는 좀처럼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사건을 아주 객관적인 처지에서 간략하고 냉정하게 처리하거니와, 그의 이러한 심드렁한 반응 때문에 외부사정은 그저 몸을 잠깐 가벼이 훑고 지나가는 미풍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취급된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외부에 무관심한 수동화된 인물의 시선에 비친 세상은 비정하다 싶을 만큼 담담하게 기술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의식 속에는 반드시 세상일이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감은 물론이고 또 이러저러했으면 좋겠다는 주관적 선호마저도 없게 된다. 손창섭의 작품에서 이 일인칭 화자인 ‘나’는 거의 작가의 분신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점은 그의 작품 <신의 회작>에서 비교적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세상을 방관자적인 위치에서 구경하는 이러한 냉소적 태도는 주

18) 손 창섭, 유실뫼, 앞의 책.

위세계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회극적인 것은 그냥 구경하는 것이지, 결코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베르그송은 회극의 본질로 대상과의 일정한 간격과 무감동성을 손꼽는데,¹⁹⁾ 인용대목에서 이 점은 충분히 드러나 있다. 즉, 현실을 동정하지도 그에 연민을 갖지도 않는 ‘나’는 그저 무의미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스포오츠게임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도 ‘복싱연습’이라고 표현될 만큼 외부의 사건은 회화화되기 일쑤인데, 작품의 이 회화적 요소는 비단 몇몇 작품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지역적 현상은 아니다. 일인칭 시점의 작품에서는 ‘나’라는 작중인물에 의해 세상이 곧잘 회화화되고, 아니면 삼인칭 시점의 작품에서는 작가가 그 일인칭 대신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한다.²⁰⁾

이 회화적 요소의 본래 취지는 세상을 비웃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비웃음 속에는 어떤 그릇된 대상을 풍자하거나 비난하는 따위의 적극적인 목적은 없다. 다시 말해, 확고한 이성적 판단이나 원칙을 구비한 바탕 위에서 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도덕적 전망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풍자의 의도가 이 회화적 태도에는 없다.²¹⁾ ‘나’라는 등장인물의 웃음만 하더라도 우둔하고 어리석은 현실상을 단지 비웃기 위한 비웃음으로 조소와 냉소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사실상 수동화된 개인의 냉소적 태도 속에서 현실의 존재가치는 일절 소멸된다. 이것은 현실의 정신적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현실은 이미 관념상의 소멸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속물적인 인간형이 기존의 규범체계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자아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이 냉소적 태도의 인간은 거꾸로 현실에서 격리된 자아의 고립 속에서 불가불 세계의 상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아의 고립은 기존 관습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자기개발과도 무관한 진공의 상태이

19) 김 형효, 베르그송의 철학, 민음사, 1991, 117면.

20) 가령 <유실물>, <미해결의 장>은 일인칭, <생활적>은 삼인칭 시점을 취한다.

21) N. 프라이(임 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314면.

다. 여기에는 새로운 삶이 마련되어 있지도 또 모색되지도 않는다. 있다면 만성적인 환멸과 무기력에 젖어 있는 피폐한 모습의 자아와 그 자아로부터 끊임없이 발산되는 냉소와 허무의 분위기뿐이다. 그러한 냉담한 분위기로 인해 외적 세계의 소재들은 한번도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숙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경험'의 소재로서의 의미는 일체 상실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들 인물들에게 현실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이 된다.

이러한 무심한 심리상태가 공격화되면 파괴적인 충동으로 나타난다. 파괴적 충동은 말하자면, 냉소와 동일한 심리기제 위에서 있는 셈이다. 흔히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심적 태도는 그 하찮은 대상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요인으로 표면화되면 거의 맹목적으로 그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밀어내기 위해 파괴하기 일쑤다. 작가 손창섭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현실에서 그 어떤 형태의 창조적인 자기실현을 꿈꾸지 않는 이들 인간들은 억압된 자신의 에너지를 냉소적 태도 속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형태로 분출시킨다.²²⁾ 작가의 자화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작품 <신의 회작> 속의 등장인물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작품에서 현실에서 전적으로 고립된 'S'라는 등장인물은 외부세계에 앞뒤 없는 저항과 맹목적인 적개심을 보인다. 이를 작가는 냉정한 관찰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려낸다.

그는 무슨 일에 있어서나 막다른 판에 부닥치면,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와, "그 놈을 죽여버리고 나도 없어지면 그만 아냐?" 살인과 자멸의 충동으로 기울어지곤 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조금도 놀라운 일도, 무서운 일도 아니요, 언제나 무엇에 도취하듯 자신있게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한 가능성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제 싫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가능성의 약화는 마치 그의 인간 가치가 존재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 같이 겹났던 것이다.²³⁾

이미 냉소적인 시선으로 인해 외부대상은 그의 마음 속에서 한 차례 그

22) E. 프롬, 위의 책, 165면.

23) 손 창섭, 신의 회작, 위의 책.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뒤이지만, 이와 같은 파괴적인 상태에 이르면 그것은 더욱 적극화된다. 이 파괴적 충동이 현실로부터의 억압과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게 되는 참을 수 없는 개인적 무력감과 고립에서 비롯됨은 물론이다. 여기서 자아가 외부세계를 성공적으로 파괴할 경우, 그가 외롭게 고립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때 그의 고립은 동시에 외부세계의 압도적인 힘을 버텨낸 '자랑스러운' 고립이다.²⁴⁾ 이 파괴욕구는 일견 앞서 거론한 바 있는 권위주의를 추종하는 새디즘적 충동과 흡사해 보이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즉 냉소적 태도와 파괴적 충동은 존재하는 대상을 맹목적으로 제거하려는 태도로서 대상의 생존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새디즘적 충동은 어디까지나 착취대상과의 기생적인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 말하자면 상대를 착취하는 입장이지만, 당연히 그 대상의 협력 없이는 조금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 새디즘의 정체다. 결국 새디즘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상의 협조를 구한다면, 파괴적 충동은 그와 달리 때로 분별력을 잃으면서까지 대상의 제거에만 골몰한다.²⁵⁾

예컨대 작품 <유실몽>에서 작중인물 '누이'의 남편인 '상근'은 갖은 회유와 폭력으로 누이를 지배하고 또 그녀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살아가지만, 그녀 없는 그의 존재는 풀이 죽은 빈 껍데기로 묘사된다. 그렇지만 무력하기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냉소적인 태도의 '나'가 누이에 대해 취하는 방식은 이와 좀 다르다. 즉, 그는 누이의 삶을 은근히 경멸하다 결국에는 어쨌든 그녀와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며 세속적 현실을 대변하는 그녀의 걸을 떠나간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상근과 같은 새디즘적인 인물은 무엇보다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약화된 자신을 '보강'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 같은 냉소적 인물이나 그것이 공격화된 파괴적인 인물들은 외부로부터의 억압을 단순히 멀리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약화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²⁶⁾

24) E. 프롬, 위의 책, 162면.

25) E. 프롬, 앞의 책, 163면.

26)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 냉소적, 파괴적 인물의 입장은 결국 실패한다. 그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타인의 죽음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나를 회복불가능의 대상으로서 구성한다. 그러므로 증오의 승리는 그 출현 그 자체에 있어서 좌절로 변한다. 증오는 우리를 이 순환- 새디즘과 매

4

아마도 실존이라는 이름이 막연한 개체 관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음직한 50년대의 문학적 풍토에서 정녕 개념상으로 실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적지 않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흔히 실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자발성이 거론되곤 한다. 여기서 자발성이 뜻하는 것은 허위의 관습과 사회적 규범에 매몰된 개인을 거기서부터 구출하여 그에게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함이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삶의 법칙을 좇아 규정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예정된 본질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실존적 자발성이다. 이 자유로움은 그러나 선험적 본질이니 하는 따위의 고도로 지성화된 정신적 인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주어진 상황과의 창조적이고도 자율적인 만남의 형성마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바꾸면, 이 자발성은 세상을 앞뒤 없이 중요하거나 파괴하고, 또 냉소해도 좋은 그런 무책임한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현실의 경험들을 새롭게 통합하고 질서지우는 책임있는 자유를 지향한다. 이들이 말하는 자발성은, 그래서 자아의 정서적, 감각적, 지적 능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그 표현이 또한 어디까지나 주어진 상황과 진지하게 대면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게끔 스스로 처신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적 개인은 결국 상황과의 끊임없는 창조적 교신 속에서 스스로를 새로이 조직하고 또 상황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존적 주체를 이렇게 이해할 때, 손창섭 소설에서 보이는 이색적인 인간들을 이 범주에 소속시킬 수 없음을 자명하다. 비록 예외적인 개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그들은 외부의 정황에 통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동화된 개인들이다. 이들은 살피본 대로 현실과 진지하게 대면하기보다는 단지 냉소적으로 그를 관망할 뿐이다. 이들은 상황 속에 자신을 자율적으로 위치시켜 또 하나의 새로운 자기발견을 꾀하기보다는 단순히

저키즘의 관계 - 으로부터 탈출하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요는 단순히 궁극적인 시도, 절망의 시도를 나타내고 있음에 불과하다.”

상황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의 감각과 그에 기초한 적대적인 증오감만을 키워 나갈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외부와의 상호관련하에서 보다 깊이있게 천착되고 이해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음이 그 원인의 일단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좌우간 전쟁의 충격과 상황의 극심한 동요 속에서 발생한 개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순전히 일방적인 피해의식의 차원이나, 아니면 단순한 살아남기의 방면에서만 탐구되었는바, 이러한 왜곡과 굴절은 피할 수 없는 손창섭 작품의 특징이자 한계로 남는 문제이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 전후의 황폐한 여건이 바로 그 어떤 형태의 것이든 올바른 자기정립의 욕구를 불가능케 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전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현실은 그와 같은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행할 수 없었던 탓에 설령, 주체정립의 욕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욕구는 쉽사리 분해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분해된 욕구가 파괴적 충동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한다면, 전쟁은 이중적인 의미를 띤다고 하겠다. 즉 그것은 그를 통해 기존의 관념과 사회적 관습의 허구성을 드러내어 자율적 개인의 존재를 일깨웠는가 하면, 동시에 그러한 일상현실의 허위에 눈뜬 개인에게 자기확장의 터전이 될 만한 아무런 현실적 기반도 마련해 주지 못함으로써 개인에게 오히려 억압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로 볼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파행적인 개인의 삶을 야기시킨 주된 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작가 손창섭은 이러한 파행이 자기 자신의 왜곡된 성장과정에 더 많이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를 보다 사회·역사적인 구조적 관점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만이 작가 손창섭은 비로소 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 왜곡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특성이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통과하면서 총체적인 표현을 얻게 되었음은 간과되지 않고 기억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손 창섭, 정통문학대계20, 어문각, 1988.
- 조 남현, 손창섭 소설의 자리매김, 문학정신, 1989, 6/7.
- 유 종호, 모멸과 연민 (상/하), 현대문학, 1959,9/10.
- 송 기숙,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 현대문학, 1964,9.
- 김 상일, 손창섭 또는 비정의 문학, 현대, 1961,7.
- 김 윤식/김 현, 손 창섭 혹은 자기부정의 미학,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4.
- 천 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4.
- 김 형효, 베르그송의 철학, 민음사, 1991.
- 조 요한, 예술철학, 경운사, 1986.
- 김 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1.
- 신 오현, 자유와 비극, 문학과 지성사, 1982.
- _____, 자아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89.
- 조 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83.
- 김 병우, 존재와 상황, 한길사, 1983.
- J.P. 사르트르(양 원달 역), 존재와 무(하), 울유문화사, 1990.
- _____(김 봉구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문고, 1972.
- E. 프롬(이 규호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삼성출판사, 1983.
- N. 프라이(임 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 N. 하르트만(전 원배 역), 미학, 울유문화사, 1991.
- D.C. 무에케(문 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출판부, 1980.
- J. 고드스블롬(천 형균 역), 니힐리즘과 문화, 문학과 지성사, 1988.
- W.C. 부우스(최 병규 역), 소설의 수사학, 새문사, 1985.
- T. 짜라/A. 브르통(송 재영 역), 다다/쉬르레알리즘 선언, 문학과 지성사, 1991.